

시(視)의 분절에서 관(觀)의 융합으로:
서구 이분법적 인식(認識) 체계의 해체와 원효 일심(一心) 사상의
인식론적 대안

박진희(2024126504)
불교사학과 석사과정
지도교수: 고영섭 교수님

이번 한 학기 동안 진행된 <기신사상특강>은 이제 막 본격적인 불교 사상사에 눈을 뜬 필자에게 거대한 산맥을 마주보는 압도되는 시간이었다. 원효(元曉)의 『대승기신론 소·별기(大乘起信論疏·別記)』는 파편화된 개별 주석서가 아닌, 당시 첨예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었던, 중관학과 유식학, 그리고 『열반경』에서 촉발된 여래장 사상을 회통시켜 대승법체의 정수를 모두 담았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80여 부 200여 권의 방대한 저술 목록이 증명하듯, 원효의 사상적 궤적은 계율, 반야, 중관, 화엄, 정토 등 대승불교 경론 전반에 걸쳐 유례없는 사상적 횡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승기신론 소·별기』의 서(序)에는 유가(儒家)와 노장(老莊)의 사유마저 유려하게 혼재되어 있어, 유불선(儒佛仙) 삼교를 회통시키고 있다.¹⁾

또한, 동아시아 특유의 융합적 사유관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원효의 화쟁(和諍) 사상이 현실과 초월을 분절시키는 서구의 인식론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인도의 초기 불교의 심성론은 차안(此岸)을 철저히 부정하고 이를 초월한 열반의 경계만을 궁극적 피안(彼岸)으로 삼았다. 반면, 중국화된 불교 심성론은 차안(此岸)과 피안(彼岸), 곧 현실성과 초월성을 끊임없이 교차시키고 통일하는 '심체용설(心體用說)'의 원리로 나아가며 '사람마다 모두 불성(佛性)을 갖고 있다'고 선포했다.²⁾ 원효는 이원론적 단절을 극복하려는 이러한 지적 흐름을 꿰뚫어 보고, 마침내 '일심이문(一心二門: 생멸문과 진여문)'이라는 거대한 융합의 체계를 완성해 냈다. 동아시아적 불교 사상을 확립한 이 위대한 통찰은 곧 본 논고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철학적 기반이 된다. 따라서 필자는 본고 후반부에서 동아시아 불교의 정수인 원효의 일심(一心) 철학을 바탕으로, 서구 문명에 뿌리 깊게 박힌 이분법적 인식론을 해체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사유의 지평을 제시했다.

일단, 동아시아 철학의 주객미분(主客未分)적 사유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본다'는 인식론적 전제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언어 구조에서는 '주체가 의도를 가지고 대상화하여 보는 시(視)'와 '그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견(見)'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애초에 주어(나)와 동사(대상)의 경계가 날카로운 인도-유럽어족의 이분법적 사유와 달리, 주어를 생략하고 행위와 상태 중심으로 전개되는 동아시아적 사유에는 나와 타자를 분절하지 않는 공동체적 공감과 '무아(無我)적 감각'이 언어의 기저 깊숙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나아가 불교 철학에는 이 주객 분리의 '시(視)'와 자연스러운 '견(見)'을 넘어선, 세계의 심층 구조를 꿰뚫어 보는 '관(觀)'의 영역이 존재한다. 유식학(唯識學)에서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1) 원효, 『대승기신론 소·별기』, 최세창 역, 운주사, 2016, 45-46쪽

2) 몽배원, 『중국심성론』, 이상선 역, 법인문화사, 1996, 25쪽

의 환상을 깨고 의타기성(依他起性)의 얽힘을 거쳐 원성실성(圓成實性)의 진리에 가닿듯,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적 모순과 폭력을 본질적 잣대가 아닌 뚜렷한 연기(緣起)적 구조로 '관(觀)'할 때 비로소 근원적 성찰에 이를 수 있다.

사실 본고는 바로 이 심층적인 '관(觀)'의 태도로 출발한 글이며, 따라서 관례적인 원효의 저술에 대한 문헌학적 개론서가 아님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관'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본 논고는 원효(元曉)가 『대승기신론소』에서 중생의 마음을 번뇌와 차별이 들끓는 현상계인 '생멸문(生滅門)'과, 청정하고 평등한 본질의 세계인 '진여문(眞如門)'으로 교차하여 설명한 철학적 궤적을 전개 방식으로 삼는다. 필자는 동시대 청년 세대의 맹렬한 혐오 현상과 최근의 투표 성향을 목도하며 실존적 충격을 받았다. 한편, 청년 세대는 더 이상 과거 민주화 운동의 역사성을 무작정 계승하기보다, 지금의 사회 구조적 모순과 불공정성에 분노하는 탈이념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최근 불거진 미시적 혐오와 타자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수천년간 지속된 서구적 이분법의 매트릭스가 가장 최전선에 놓인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신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생멸'의 풍경을 '관(觀)'하여, 2026년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타자화와 양 극단의 진영 논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연기(緣起)했는지 그 모순의 뿌리를 집요하게 추적하고자 한다.

그렇기에 본고는 원효(元曉)의 사상을 다루는 글임에도 불구하고, 서구 문명을 지배해 온 배타적 '이분법적 상징 체계'와 '타자화의 논리'가 디아스포라와 냉전을 거쳐 현대의 진영 논리와 캔슬 컬처로 어떻게 변태하며 팽창해 왔는지 그 거시적인 사상사적 계보를 우선적으로 해부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개가 철학과 특유의 전통적이고 문헌학적인 글쓰기 방식에서는 다소 낯설고 파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으나, 이 참혹한 이분법적 현실(생멸)을 뼈아프게 직시하지 않고서는 그 궤도를 멈춰 세울 궁극의 대안(진여)을 진정 호출해낼 수 없다고 본다.

본고는 이러한 서구적 모순을 추적한 후, 원효의 화쟁(和諍) 사상을 동시대의 대안적 사유로서 고찰해 볼 것이다. 모순을 꺼안는 원효의 융합적 사유는 작금의 시대를 치유하고 분별의 잣대를 거두게 할 유일하고도 근원적인 철학적 대안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I.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서울 지역 20대의 투표 결과는 한국 정치 지형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최근 20대 청년층은 성별을 불문하고 보수화 경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장기 시위나 각 대학의 대자보 성명 발표 등에서 볼 수 있듯 능동적이고 강력한 정치적 행위자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적 에너지는 사회 발전을 위한 생산적이고 논리적인 담론 구성으로 이어지기보다, 5.18 민주화 운동 등 기존의 역사적 합의를 폄하하거나 기성 정당 및 4050세대를 향한 적대적 분노로 표출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정민철(2001년 출생)은 저서 『1020 극우가 온다』에서 이러한 극단화의 원인으로 뉴미디어 알고리즘의 파괴력을 지적한다. 그는 "일베는 하수구에 있었기에 피할 수 있었고 팸코는 접속하지 않으면 그만이었지만, 인스타그램의 릴스(Reels)는 내 손안의 스마트폰에서 매일 밤 나의 뇌를 해킹한다"며, 이것이 현세대를 과거의 커뮤니티 세대보다 교화하기 힘든 괴물로 만든 이유라고 분석한다. 또한 "유튜브와 틱톡이 1초마다 도파민을 뿜어내며 아이들의 뇌를 자극하는 반면, 학교는 진부한 도덕적 접근에 머물러 자극에 길들여진 아이들에게 아무런 면역력을 주지 못하는 '직무 유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³⁾ 건강한 독서와

3) 정민철, 『1020 극우가 온다』, 페이지2, 2026, 84, 251쪽.

신체 활동으로 채워져야 할 자리에 15초짜리 자극이 파고들면서, 30분짜리 영상의 맥락조차 건디지 못하는 '도파민 세대'가 도래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혐오 표현과 부적절한 콘텐츠를 생산·유통하는 글로벌 플랫폼을 제때 규제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과, 남녀·세대·지역의 갈라치기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온 기성세대의 관습적 세태에 대한 더 뼈아픈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이들이 기성세대와 레거시 미디어를 근본적으로 불신하게 된 기저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22년 '이태원 참사'를 관통하며 누적된 국가 시스템에 대한 청년 세대의 집단적 트라우마가 자리하고 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무책임한 지시를 따르다 억울하게 희생된 동년배 친구들의 참상을 동시대적으로 목격했기에, 이들에게 기성세대를 향한 부정과 불신은 일종의 '생존 감각'으로 각인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국가적 대형 참사들이 명확한 진상 규명 없이 흐지부지 종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이들은 깊은 무력감과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 결국 그들은 기성 언론이 보도하는 사실을 거부하고, 직감적으로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며 SNS를 통해 정보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세계관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설파하고 소비하는 '음모론적 뉴스'의 확산 배경을 오직 2030세대의 순수한 상실감과 동기로만 환원하여 이해하는 것은 위험하다. 청년층의 소외감과 분노를 위로하는 척하며, 그 에너지를 착취해 혐오와 극단적인 특정한 정치적 방향으로 추동하는 또 다른 기성 정치 집단이나 외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 역시 결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청년층의 불안과 정치적 극단화 현상이 비단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 지구적인 거시적 위기와 맞물려 폭발력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국제 사회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2026년 미·중 패권 경쟁이 노골화되는 등 극도의 지정학적 혼란을 겪고 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 재직 중인 박노자 교수는 저서 『야만시대의 귀환』에서 2007~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기점으로 글로벌 신자유주의 체제가 세계적인 신용을 상실했으며, 그 빈자리를 '국민국가 본위의 경제'가 대체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⁴⁾한 바 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기존의 이념이나 동맹 관성을 벗어던지고 자국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탈이념적' 실용주의적 행보로 급선회하고 있다. 2015년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G7 국가 중 최초로 영국이 가입을 선언한 이래, 미국의 거센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재 20여 개 이상의 유럽 국가들이 주요 출자국이자 의사결정 그룹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1951년 이후 공식 외교 관계가 단절되었던 바티칸과 중국 역시, 2018년 프란치스코 교황 체제 하에서 '중국 내 주교 임명 방식'에 대한 전향적인 임시 합의를 도출했고, 올해 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 체제에서도 이를 거듭 연장해 오고 있다. 이는 바티칸을 비롯한 유럽이 과거의 초국적 대자본 중심의 확장 방식에서 탈피하여,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 긴밀히 협력하며 철저히 유럽 대륙 '자국 본위'의 생존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달러 패권을 지탱해 온 핵심 축이자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2024년 브릭스(BRICS) 가입과 동시에 원유 대금을 오직 달러화로만 결제하던 독점적 협정을 종료했다. 대신, 달러뿐만 아니라 중국 위안화와 유로화, 심지어 디지털 화폐를 통한 결제까지 전면 허용했다. 이는 1971년 미국의 금분위제 폐지 이후, 1974년에 확립되어 세계 경제를 지배해 온 '페트로 달러' 체제에 심대한 균열을 낸 상징적 사건이다.

4) 박노자, 『야만 시대의 귀환』, 한겨레출판, 2026, 8, 41쪽.

나아가, 미래 패권의 두뇌라 할 수 있는 첨단 기술 산업에서의 미국 중심의 기존의 질서도 요동치고 있다. 연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그리고 엔비디아(NVIDIA)와 TSMC의 독주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대만-한국, 네덜란드 등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지금의 반도체 생태계가 앞으로도 확고한 기술적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취임식에 맞춰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기습적으로 발표하며 미국 사회 전역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그 징후다.

최근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을 출간한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이른바 '딥시크 쇼크'처럼 미국의 전방위적이고 촘촘한 첨단 칩 수출 통제망 속에서도, 중국이 우회로를 뚫어 독자적으로 개발시켜온 새로운 기술을 언제든 '기습카드'로 꺼내들 수 있음을 지적한다.⁵⁾ 더욱 치명적인 것은, 중국이 범용 희토류를 넘어 갈륨, 게르마늄, 흑연, 안티모니 등 차세대 반도체 제조와 AI 하드웨어 구동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들의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여 언제든 서방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실물 자원의 무기화'까지 마쳤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 능력과 희귀자원의 무기화는 한·미·대만의 '실리콘 트라이앵글'에 언제든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맹목적인 동맹 관성과 '메모리 강국'의 신화에 안주해 온 한국의 첨단 산업이, 단 한 번의 지정학적 지진으로 붕괴할 수 있다는 서늘한 신호다.

이러한 글로벌 패러다임의 거대한 지각변동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굳건한 한미 동맹과 미국의 원조에 기대어 성장해 온 한국에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기존의 맹목적인 동맹 관계의 관성만으로는 더 이상 국가의 안위를 담보할 수 없는 중대한 생존의 기로에 선 것이다. 그 결과 현재의 한국은 전 세계의 가장 복잡하고 이질적인 권력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초고압의 지정학적 각축장'으로 변모했다. 대중(對中) 봉쇄 전략을 펼치는 미국, 트럼프의 강성 지지층(MAGA)을 중동의 늪으로 끌어들여 역내 패권을 유지하려는 이스라엘의 근본주의적 시오니즘⁶⁾,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를 장악한 세속적 글로벌 금융 세력, 그리고 독자 노선을 걷는 유럽과 팽창하는 중국의 거대한 에너지가 바로 이 한반도 땅 위에서 위태롭게 뒤엉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발 디지털 화폐 경제(CBDC)의 전 세계적 확산 전망과 뉴럴링크(Neuralink)로 대변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등장은, 전 지구적 통제 강화와 '인간성의 종말'을 우려하는 각종 음모론마저 증폭시키고 있다. 결국 이 거대한 '체스판'의 가장 말단에 놓인 취약한 청년 계층은 구조적 모순의 실체를 직시할 시야를 박탈당한 채,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는 깊은 혼란과 반동적 니힐리즘에 추동되고 있는 형국이다.

5) 권석준,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 사이언스북스, 2026, 11쪽

6) John J. Mearsheimer and Stephen M. Walt, *The Israel Lobby*, (*London Review of Books* 28, no.6, 2006), pp.29. "One might assume that the bond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based on shared strategic interests or compelling moral imperatives, but neither explanation can account for the remarkable level of material and diplomatic support that the United States provides. Instead, the thrust of U.S. policy in the region derives almost entirely from domestic politics, and especially the activities of the 'Israel Lobby'." ("두 나라의 결속이 공유된 전략적 이익이나 강력한 도덕적 당위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설명도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놀라운 수준의 물질적, 외교적 지원을 정당화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지역에 대한 미국 정책의 핵심적 추진력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국내 정치, 특히 '이스라엘 로비'의 활동에서 비롯된다"). 미어샤이머와 월트는 냉전의 유산이나 전통적인 지정학적 국익만으로는 세계 패권국인 미국의 맹목적인 친이스라엘 행보를 결코 설명할 수 없음을 단언하며, 미국이 자국의 안보적 이익마저 희생해가며 이스라엘과 일체화되는 비정상적 현상의 근저에는 바로 '유대계 로비'라는 막강한 국내 정치적 네트워크가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명징하게 지적한다.

II.

20세기 동아시아 사상적 지형을 지배하다시피 한 근대 서구 철학의 뼈대는 단연 '정반합(正反合)'으로 대변되는 변증법적 논리(Dialectic)다. 세계의 역사가 끊임없는 모순의 극복을 통해 절대정신(Absolute Spirit)으로 나아간다고 본 헤겔(G.W.F Hegel)의 관념론적 변증법, 혹은 자본주의적 구조적 모순을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의 혁명과 투쟁을 통해 타파하고자 했던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의 역사적 유물론이 그 대표적인 궤적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서구의 변증법적 철학은 고대 그리스의 형식논리학과 기독교의 목적론적 세계관이라는 두꺼운 지층 위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배중률(Law of Excluded Middle)과 모순율은 "A는 A이거나 A가 아니다. 그中间的 제3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하고 있다.⁷⁾ 이는 본래 사유의 모순을 없애고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하기 위한 순수한 인식론적 장치였으나, 세계를 파악하는 지배적인 틀로 확장되면서 점차 주체와 객체, 나아가 '아군과 적군'마저 엄격히 분절하는 배타적 인식 구조를 낳고 말았다. 여기에 기독교적 선형적(Linear) 역사관이 결합한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인류의 역사가 원죄로 타락한 '현재'에서 출발해, 최후의 심판과 투쟁을 거쳐 메시아가 지배하는 구원론적 종말을 향해 일직선으로 전진한다고 믿는다. 결국, 진리 탐구를 위해 확립되었으나 훗날 타자를 배제하는 기제로 차용된 아리스토텔레스의 '배중률의 논리적 정합성과 형식미'와, 완벽한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기독교의 '목적론적 진보관'이 융합함으로써⁸⁾, 필연적으로 갈등(反)을 딛고 투쟁해야만 새로운 단계(合)로 도약할 수 있다는 서구 특유의 변증법적 세계관이 완성된다. 물론 이러한 명확한 분석 기제가 근대 합리적 이성과 과학 발전의 초석이 되었고, 선형적 역사관에서 비롯된 '낙관적 진보주의'가 인류의 숙명론을 극복하고 인권과 사회 제도의 도약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역사적 공헌 역시 결코 간과할 수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변증법은 모순된 두 현상(正과 反)을 충돌시켜 새로운 결과물(合)을 낳는 끝없는 '투쟁의 궤도'를 돌게 하는 반면, 동아시아의 철학적 전통은 이분법적 갈등을 극복하는 전혀 다른 인식론적 궤적을 제시하며, 이는 유불도의 경계를 넘어 깊이 공명하는 부분이다.

7세기 사상가 원효(元曉)의 불교 인식론은 혼란스러운 양비론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파도(생명의 총위)와 직접 다투지 않는다. 대신 그는 『대승기신론 소별기(大乘起信論疏·別記)』를 통해 그 파도와 흑백논리를 만들어낸 근본 원인, 즉 주객을 분리하고

7) Aristotle, *Metaphysics*, Book IV (Gamma), Part 7, 1011b23-24, trans. W. D. Ross (Oxford: Clarendon Press, 1924). "But on the other hand there cannot be an intermediate between contradictories, but of one subject we must either affirm or deny any one predicate." ("모순되는 두 명제 사이에 중간자란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는 하나의 주어에 대해 단 하나의 술어를 긍정하거나 부정해야만 한다.")

8) Richard Tarnas, *The Passion of the Western Mind: Understanding the Ideas that Have Shaped Our World View* (New York: Ballantine Books, 1991), pp.91-93. "The synthesis of Greek rationalism, which emphasized formal logic and categorical distinctions, and Judeo-Christian teleology, which posited a linear historical progress toward a divine purpose, fundamentally structured the dualistic and dialectical worldview of Western civilization" ("형식 논리와 범주적 구분을 강조하는 그리스 합리주의와, 신성한 목적을 향한 선형적 역사 진보를 상징하는 유대-기독교적 목적론의 융합은 서구 문명의 이원론적이고 변증법적인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구조화했다"). 타나스는 사물을 끊임없이 나누고 쪼개는 '그리스적 범주화(이성)'와, 최후의 심판이라는 결말을 향해 질주하는 '유대적 목적론(신앙)'의 결합이 곧 서구 사유 체계가 타자를 배제하고 갈등(정반합)을 통해 발전을 이룬다는 변증법적 폭력성의 철학적 기원이 되었음을 짚어냈다.

갈등을 조장하는 '무명의 바람(無明風)' 그 자체를 타격하고 소멸시켜야 한다고 역설한다. 서양의 논리가 'A와 B 중 무엇이 더 우월한가'를 따지는 배중률의 싸움이라면, 원효의 사상은 회광반조(迴光返照), 즉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돌려 '도대체 누가 A와 B를 둘로 갈라놓았는가'를 추궁하며 그 분별심의 뿌리(근본무명)를 해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원효의 시선은, 세계를 유대-기독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서구적 맥락의 '원자화된 타자들의 투쟁 공간'으로 환원하는 이분법적 인식들이 아닌, 개별적 존재들이 서로 교섭하며 생멸하는 거대한 '일심(一心)의 바다'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선을 '내면의 심층'으로 돌려 분별의 잣대를 꺾어버린 바로 그 자리에, A와 B가 본래 거대한 연기(緣起)적 그물망 속에 얽혀 상즉상입(相即相入)하는 융합적 존재로 드러남을 밝혀내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선을 조금 더 깊은 심연으로 옮겨, 서구 역사를 끊임없는 대립과 투쟁으로 몰아넣는 이 거대한 '분별의 무명풍(無明風)'이 도대체 어디서 발원했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해야 한다. 서구 변증법의 기저를 관통하는 근원적 작동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철학사를 넘어, 앞서 살펴본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 구조와 기독교적 목적론의 뿌리가 되었던 유대교의 '토라(Torah)적 사유',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메시아주의(Messianism)'의 배타성을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

흥미롭게도 1945년 이집트에서 발견된 초기 기독교 문헌인 『도마복음(Gospel of Thomas)』을 살펴보면, 초기 예수의 가르침은 외부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과 배타적 경계가 없는 '비이원론적(non-dualistic) 세계관'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주류 정통 기독교가 초기 문헌의 궤적과 달리 선과 악을 엄격하게 분절하는 배타적 이원론(Dualism)과 선형적 목적론을 띠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이는 엄격한 바리새파 율법에 정통했던 유대 혈통의 사도 바울(Paul the Apostle)이 신약 성서의 텍스트 집필과 초기 신학 교리의 정경화(Canonization)를 전면에서 주도한 결과다.⁹⁾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탄생한 신흥 소수 분파를 거대한 이방 세계로 전파하고 교단을 강력히 결속시켜야 했던 바울에게는, 모호한 내면적 깨달음보다 '죄와 대속', '영과 육'을 선명하게 가르는 율법적 이분법과 압박한 종말론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이념적 무기였기 때문이다.

즉, 바울을 매개로 유대교의 토라적 사유와 목적론적 역사가관이 서구 문명의 뼈대인 기독교 교리 안으로 깊숙이 이식된 것이다. 특히 역사 내내 주류 사회의 '타자'로 배제되었던 디아스포라의 가혹한 조건 속에서 잉태된 강렬한 메시아주의(Messianism)는, 기독교 세계관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현실의 모순과 싸우며 지상에 완벽한 이상향을 건설하려는 거대한 '투쟁의 엔진'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텍스트의 모순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탈무드(Talmud)의 해석 논쟁과 타락한 현재를 전복하려는 예언자적 혁명성은 서구 사유의 특징인 '변증법적 투쟁'의 원형을 제공했다. 그리고 이 유구한 지적 전통은 훗날 근대의 세속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본주의의 극단적 팽창과 공산주의의 무자비한 계급 투쟁이라는 현대 서구 문명의 양극단적 대립을 추동하는 사상적 질료로 고스란히 흡수되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근현대사의 숨겨진 구조가 드러난다. 흔히 20세기의 세계사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와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가 격돌한 냉전(Cold War)의 구도로 설명되곤 한다. 오늘날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글로벌 금융 자본과 할리우드의 문화 산업 전반에 걸쳐 유대계 네트워크가 규모에 비해 '큰 몫'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심지어 기독교 근본주의와 결합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의 국가주의적인

9) 도울 김용욱, 『예수님의 육성, 도마복음』, 통나무, 2025, 100-108쪽

현 집권 세력조차, 이란이나 하마스 등과 전쟁을 불사하는 이스라엘의 시오니즘(Zionism)과 강력한 지정학적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배타적 사상적 궤적이 여전히 세계사의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방증¹⁰⁾¹¹⁾이다.

이토록 거대한 네트워크의 사상적 기원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감내해야 했던 가혹한 생존의 궤적, 즉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유수(Babylonian Captivity)’라는 결정적 변곡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신흥 제국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은 바빌론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해방시켰다. 이후 약 200년간 페르시아 제국(Achaemenid Empire)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유대인들은, 당시 국교였던 조로아스터교의 웅장한 신학적 세계관을 깊숙이 흡수하게 된다. 세계를 선(아후라 마즈다)과 악(앙그라 마이뉴)의 타협할 수 없는 ‘우주적 전쟁터’로 바라보는 강력한 이원론, 역사가 목적지를 향해 직선으로 나아간다는 선형적 목적론, 그리고 종말에 구원자가 도래한다는 메시아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 거대한 사유 체계와 접속하면서, 혈연 중심의 토속 신앙에 머물러 있던 유대교는 비로소 ‘투쟁적이고 변증법적인’ 보편 종교의 틀로 극적인 진화를 이룬다.¹²⁾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가장 흥미로운 역설은, 동일한 ‘이원론(Dualism)’을 품었음에도 제국과 피지배 민족의 사상적 성격이 판이하게 엇갈렸다는 사실이다. 압도적인 힘을 지녔던

10) John J. Mearsheimer and Stephen M. Walt, *The Israel Lobby*, (London Review of Books 28, no.6, 2006), pp.29. "No lobby has managed to divert U.S. foreign policy as far from what the American national interest would otherwise dictate, while simultaneously convincing Americans that U.S. and Israeli interests are essentially identical." ("어떤 이익 집단도 미국의 외교 정책을 본래의 국가적 이익에서 이토록 멀어지게 우회시키면서, 동시에 미국인들에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익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득하는 데 이처럼 성공한 적이 없다"). 미어샤이며와 월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정학적 결속이 객관적인 국익의 일치나 도덕적 당위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거대한 유대계 로비 네트워크가 미국의 국내 정치와 대중의 인식을 장악하여 국가 정책의 궤적 자체를 비틀어버린 치밀한 권력적 산물임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11) John J. Mearsheimer and Stephen M. Walt, *The Israel Lobby*, (London Review of Books 28, no.6, 2006), pp.29-30. "Since the October War in 1973, Washington has provided Israel with a level of support dwarfing the amounts provided to any other state. It has been the largest annual recipient of direct U.S. economic and military assistance since 1976 and the largest total recipient since World War II. [...] Other recipients get their money in quarterly installments, but Israel receives its entire appropriation at the beginning of each fiscal year and can thus earn interest on it. It is the only recipient that does not have to account for how the aid is spent" ("1973년 10월 전쟁 이후, 미국 정부는 다른 어떤 국가에 제공된 금액도 초라하게 만들 만큼 압도적인 수준의 지원을 이스라엘에 제공해 왔다. 이스라엘은 1976년 이래 미국의 직접적인 경제 및 군사 원조를 가장 많이 받는 연간 최대 수혜국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누적 기준으로도 최대 수혜국이다. [...] 다른 수혜국들은 원조금을 분기별로 나누어 받지만, 이스라엘은 회계연도 시작과 동시에 배정된 예산 전액을 일시불로 수령하여 이자 수익까지 챙긴다. 또한 이스라엘은 지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회계 보고를 할 의무가 없는 유일한 수혜국이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다른 어떤 맹방도 누리지 못하는 상식 밖의 재정적 특혜를 독점하고 있음을 고발하며, 글로벌 금융과 권력의 심장부를 장악한 유대계 로비가 미국의 국가 예산을 이스라엘의 배타적 팽창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동원하고 있는지 그 숨겨진 구조를 적나라하게 입증한다.

12) Mary Boyce, *Zoroastrians: Their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s*(London: Routledge, 1979), esp. Chapter 4. "Following the Babylonian Exile, Second Temple Judaism actively absorbed the core tenets of Zoroastrianism—such as the cosmic dualism of good and evil, the Last Judgment, and the expectation of a Messiah. It was through this profound doctrinal assimilation that Judaism was fundamentally transformed, establishing its framework as a universal and fiercely militant religion" ("바빌론 유수 이후의 제2성전기 유대교는 선과 악의 우주적 이원론, 최후의 심판, 그리고 메시아 대망 사상과 같은 조로아스터교의 핵심 교리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했다. 이러한 심원한 교리적 동화 과정을 거치면서 유대교는 근본적으로 변모하였고, 비로소 보편적이고 맹렬히 투쟁적인 종교로서의 틀을 확립하게 되었다").

거대 제국 페르시아는 ‘빛과 어둠’의 대립을 우주적 질서로 관조하며 여러 피지배 민족을 포용하는 고도의 ‘다원주의(Pluralism)’를 펼칠 수 있었다.¹³⁾ 반면, 바빌론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짓밟히는 소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이원론은 철저히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절박한 생존 무기여야만 했다.

가혹한 디아스포라 환경 속에서 유대인들은 조로아스터교의 웅장한 우주적 이원론을 ‘우리를 핍박하는 이방인(사탄)’과 ‘순결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배타적 진영 논리로 극단적으로 응축시켰다. 물리적 영토를 상실한 채 끝없는 위협 속에서 동화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이들은 타자와 자신을 엄격히 분리하는 ‘선민의식’과 타협 없는 ‘극도의 율법주의(Legalism)’라는 보이지 않는 사상적 성벽을 높게 쌓아 올린 것이다.¹⁴⁾ 결국, 페르시아의 거대 이원론이 핍박받는 디아스포라의 처절한 생존 본능과 결합하여 빚어낸 이 ‘배타적 진영 논리’의 탄생이야말로, 훗날 서구 문명의 투쟁적 기저를 형성하고 작금의 유대계 네트워크를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결속체로 직조해 낸 근원적 동력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고대 시대부터 디아스포라 환경 속에서 잉태된 민족적 폐쇄적 사유와 견고한 결속력은, 중세 유럽에 이르러 고도화된 경제적 생존 전략으로 변모하게 된다. 중세 유럽 사회에서 철저한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유대인들은 주류 기독교 사회로부터 토지 소유를 금지당했고, 주요 상공업 길드(Guild)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었다. 게다가 당시 기독교 교리가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Usury)를 타락한 죄악으로 규정하여 전면 금지한 반면, 유대 율법은 이방인에 대한 이자 수취를 예외적으로 허용했기에, 이 교리적 틈새를 파고든 유대인들은 역설적으로 점차 팽창하는 유럽 경제의 필수 불가결한 혈관인 대부업과 금융 네트워크에서 자신들의 인구 규모에 비해 이례적으로 거대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¹⁵⁾

나아가, 끝없는 박해와 추방의 디아스포라(Diaspora)를 견뎌야 했던 이들에게, 언제든 외부 권력에 의해 몰수당할 수 있는 물리적 영토나 고정된 실물 자산은 결코 생존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언제든 이동하고 교환할 수 있는 무형의 가치, 즉 어음과 신용, 화폐라는 고도화된 ‘추상적 부(Abstract Wealth)’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했

13) Amélie Kuhrt, *The Persian Empire: A Corpus of Sources from the Achaemenid Period*(London: Routledge, 2007), esp. Chapter 3. "By restoring the sanctuaries and returning the deported peoples to their homelands, the Achaemenid Empire established a highly pluralistic system of imperial governance. It consolidated its overwhelming power not through cultural obliteration, but through the strategic tolerance and integration of indigenous faiths and local customs" ("성소들을 복원하고 추방된 민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아케메네스 제국은 고도의 다원주의적 제국 통치 시스템을 확립했다. 그들은 문화적 말살이 아니라, 토착 신앙과 지역 관습에 대한 전략적 관용과 통합을 통해 그들의 압도적인 권력을 공고히 했다"). 쿠르트는 이 저서에서 기원전 539년에 제작된 '키루스 원통(Cyrus Cylinder)' 등의 고대 사료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힘을 지녔던 거대 제국 페르시아가 피지배 민족의 고유한 신앙과 관습을 존중하며 고도의 다원주의적 통치 이념을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실증적으로 조명한다.

14) Max Weber, *Ancient Judaism*, trans. Hans H. Gerth and Don Martindale (Glencoe, IL: Free Press, 1952), esp. Part III. "The Jews were a pariah people... a guest people who were ritually separated, formally or de facto, from their social surroundings. [...] All the essential traits of Jewry's attitude toward the environment can be deduced from this pariah situation" ("유대인은 천민 민족이었다... 즉 공식적으로는 사실상으로도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제외적으로 철저히 분리된 객민(客民)이었다. [...] 주변 환경을 대하는 유대교 태도의 모든 본질적 특징은 바로 이러한 천민적 상황에서 연역될 수 있다"). 막스 베버는 영토와 정치적 독립을 상실한 유대인들이 가혹한 디아스포라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례적 율법을 극단적으로 강화했으며, 역설적으로 이것이 타자를 엄격히 밀어내는 배타적인 '천민 민족' 정체성과 강력한 집단적 결속력을 형성한 사회학적 동인이었음을 예리하게 분석한다.

15) 박노자, 『야만 시대의 귀환』, 한겨레출판, 2026, 219쪽

다.16) 눈에 보이는 실물이 아닌, 실체가 없는 기호(Sign)와 숫자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증식시키는 현대 금융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는, 극한의 디아스포라적 위기를 토라(Torah)의 치열한 해석 논쟁과 율법주의라는 추상적 관념으로 결정화시켰던 유대 민족 특유의 '가치 추상화' 능력과 텍스트 중심의 사유 구조가 역사적으로 진화한 결과물인 셈이다.17)

그러나 역사의 가장 흥미로운 역설은, 이 거대한 금융자본주의 제국에 정면으로 맞섰던 공산주의 진영의 심장부 역시 유대계 지식인과 혁명가들이 핵심 동력원으로 작동했다는 사실이다. 공산주의의 이념적 토대인 역사적 유물론을 창시한 카를 마르크스(Karl Marx) 본인이 유대계 혈통이었음은 물론이거니와,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주도한 볼셰비키 수뇌부의 핵심 인물들(레닌, 레프 트로츠키, 그리고리 지노비예프 등) 상당수가 유대계였다.

이러한 역사적 현상에 대해, 러시아 태생의 유대계 귀화 학자인 박노자 교수는 저서 『야만 시대의 귀환』에서 내부자의 시선이 담긴 역사적 증언을 덧붙인다. 그는 1860년대부터 1930년대 사이에 출생한 동유럽 지역의 아슈케나지(Ashkenazi)라면, 민족주의적 성격의 시오니즘보다 급진적 좌파 이념에 입문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지적한다. 과거 구미권 유대인의 대다수가 중하층 계급의 영세 수공업자나 임금 노동자라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놓여 있었기에,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지식인 사회에서 '유대인'과 '사회주의'는 사실상 동의어처럼 쓰였다는 것이다.18)

영토 없는 디아스포라로서 굳건한 국가와 민족주의 장벽 앞에서 영원한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던 유대계 지식인들에게, 민족의 경계를 허물고 전 세계 노동자의 보편적 연대를 주창하는 마르크스주의의 '국제주의(Internationalism)'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생존의 탈출구였다. 즉, 자본주의가 계약과 율법에 기초한 유대적 사유가 낳은 '가치의 추상화'에서 발아했다면19), 마르

16) Jerry Z. Muller, *Capitalism and the Jews*(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esp. Chapter 1. "The diasporic conditions of the Jews paradoxically became the historical driver that forced them to focus not on physical territory, but on 'portable human capital' and the abstract assets of finance" ("유대 민족의 디아스포라적 생존 조건이 역설적으로 물리적 영토가 아닌 '이동 가능한 인적 자본'과 금융이라는 추상적 자산에 집중하게 만든 역사적 동인이었다").

17) Werner Sombart, *The Jews and Modern Capitalism*, trans. M. Epstein (Kitchener, ON: Batoche Books, 2001), esp. Part II, Chapters 10-11. "*The Jewish intellect is before all things rational and abstract. He lives in a world of concepts, of numbers, and of quantity. [...] Capitalism itself is but a system of abstraction which reduces quality to quantity.*" ("유대인의 지성은 철저히 합리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는 개념과 숫자, 그리고 양의 세계에 산다. [...] 자본주의 역시 질을 양으로 환원하는 거대한 추상화의 시스템이다"). 쾰바르트는 이 저작에서 유대교의 고도화된 율법주의와 텍스트 중심의 사유 구조가,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인 신용 제도 와 화폐 경제라는 거대한 추상적 기호 체계를 구축하는 인식론적 토대가 되었음을 치밀하게 논증한다. 그는 유대적 사유의 본질을 '계산성(calculating spirit)'과 '추상성(abstractness)'으로 규정하며, 모든 행위를 신과의 계약 및 율법적 대차대조표로 환산하는 유대교 특유의 합리주의가 물리적 실체를 지워버리고 세계를 숫자로 환원하는 자본주의적 '가치 추상화' 구조와 완벽하게 조응하며 세속화되었음을 밝힌 것이다.

18) 박노자, 『야만 시대의 귀환』, 한겨레출판, 2026, 224쪽

19) Karl Marx, "On the Jewish Question" (1844), in *Marx/Engels Collected Works*, Vol. 3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5), pp. 169-172. "What is the secular basis of Judaism? Practical need, self-interest. What is the worldly religion of the Jew? Huckstering. What is his worldly God? Money." 그리고 "Money is the jealous god of Israel, in face of which no other god may exist. Money degrades all the gods of man—and turns them into commodities" ("유대교의 세속적 토대는 무엇인가? 실제적 욕구, 이기심이다. 유대인의 세속적 제의는 무엇인가? 장사(huckstering)이다. 그의 세속적 신은 무엇인가? 화폐이다." 그리고 "화폐는 이스라엘의 질투하는 신이며, 이 신 앞에서는 다른 어떤 신도 존재할 수 없다. 화폐는 인간의 모든 신을 전락시키고, 그것들을 상품으로 바꾸어 버린다"). 마르크스는 유대적 사유의 본질을 자본주의적 화폐의

크스주의는 세계를 자본가와 노동자의 타협할 수 없는 이분법으로 분절하는 사유였다. 나아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구원의 목적지를 향해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이 이데올로기는, 결국 고대부터 이어져 온 투쟁적 이원론과 유대적 '메시아주의(Messianism)'가 완벽하게 세속화된 또 다른 형태의 거대한 기호 체계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혹독한 차별과 빈곤에 시달리던 당시의 수많은 동유럽 유대인들에게, 초기 소련의 혁명은 단순한 정치 체제의 변화를 넘어 자신들의 사유로 직접 개척해 낸 이념적 '신대륙'이자 벽찬 해방구로 여겨졌던 셈이다.

그러나 194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거대한 역사의 전환이 일어난다. 스탈린 체제하에서 소련이 극단적인 국가민족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건국 초기 좌파 성향이 강했던 이스라엘마저 점차 친미 노선으로 기울면서, 소련 내에서 대대적인 유대인 숙청이 전개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식인 사회를 지배하던 유대인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오랜 밀월 관계는 사실상 종언을 고하게 된다. 결국 생존의 위협을 느낀 소련 내 유대인들은 1970년대를 전후하여 대규모 엑소더스(Exodus)를 감행하며 이스라엘과 미국 등지로 대거 이주했고²⁰⁾, 이는 오늘날 미국과 이스라엘을 축으로 하는 강력한 글로벌 자본·지정학적 연대가 완성되는 결정적 배경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20세기를 지배한 자본주의(正)와 공산주의(反)의 피상적인 이념 전쟁을 한 꺼풀 벗겨내면, 그 극단적 대립항의 기저에는 놀랍게도 '변증법적 투쟁'과 '메시아주의'로 대변되는 동일한 사상적 연원(淵源)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극소수의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주류 세계의 영원한 타자(The Other)로 존재해야 했던 디아스포라의 억압적 조건은 이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 화폐와 이념이라는 고도화된 '추상적 기호 체계(Abstract Sign System)'를 극한으로 직조해 내도록 만들었다. 결국 서구 문명이 세계로 확장해 나간 근대 이후의 역사는, 이 배타적이고 투쟁적인 이분법적 사유가 전 지구적 규모의 체제 전쟁으로 외화(外化)되어 나간 폭력적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유대-기독교적 사유 구조가 근현대의 거대한 기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지라도, 이를 특정 민족이 20세기의 냉전과 같은 전 지구적 갈등을 의도적으로 기획하고 조종했다는 식의 단선적인 배후설이나 음모론으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노자 교수가 지적하듯, 이른바 '유대계 자본의 세계 지배론'과 같은 음모론은 인종주의적 혐오가 낳은 맹목적인 도식에 불과하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본질은 특정 세력의 숨은 의도가 아니다. 세상을 창조주와 피조물, 빛과 어둠, 구원과 타락으로 철저히 분절하는 이원론적 토대, 그리고 역사를 최후의 심판이라는 단일한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선형적이고 투쟁적인 역사의식 그 자체다. 수천 년간 축적된 이 유대-기독교적 사유 체계가 근대에 이르러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라는 세속화된 '추상적 기호 체계'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그 인식론적 구조 깊은 곳에 이미 타자를 배제하고 갈등을 통해 모순을 돌파하려는 '변증법적 투쟁의 알고리즘'이 뼈대처럼 이식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전 인류가 물리적 영토를 넘어 이 보이지 않는 기호의 매트릭스(Matrix)에 편입된 순간, 세계는 필연적으로 끊임없는 정반합(正反合)의 대립과 갈등을 추동당하는 폭력적인 사유의 궤도에 오르게 된다. 부를 창출할수록 이면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신용 화폐 구조나, 완벽한 무계급의 이상향을 구현하기

맹목성과 구조적으로 연결한다. 이는 유대적 사유가 지닌 '실용적이고 추상적인 본질'이 결국 인간의 모든 질적 가치를 화폐라는 단일한 교환 가치로 환원해 버리는 자본주의의 '가치 추상화' 과정으로 이어졌음을 철학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20) 박노자, 『야만 시대의 귀환』, 한겨레출판, 2026, 226쪽

위해 끊임없이 '적대 계급'을 색출하고 폭력적 숙청을 반복해야 했던 공산주의의 참극은 모두가 이분법적 매트릭스가 잉태한 필연적 징후들이다.²¹⁾

결국 이러한 근현대의 구조적 비극은, 배타적이고 율법적인 유대적 사유가 사도 바울에 의해 배태되어 '보편주의적 기독교 세계관'으로 탈바꿈한 뒤, 헬레니즘의 이분법적 합리성 및 로마의 제국주의적 팽창성과 결합하면서 서구 문명 전체를 끝없는 목적론적 투쟁으로 몰아넣었던, 그 거대한 역사적 궤적의 치명적인 반복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전 지구를 덮친 서구의 이분법적 이념의 매트릭스(Matrix)는, 1945년 광복을 맞이한 한반도에 가장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이식된다. 해방의 환희도 잠시, 한국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틈도 없이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들의 신탁통치를 받으며 국토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비극을 맞이했다. 남한은 1953년, 이승만 정부와 미국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안보 방위와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내며 글로벌 자본주의 핵심부에 편입되지만 이 체제적 안정을 획득하기까지의 과정은 참으로 참혹했다. 건국 초기 발생한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은, 외부에서 이식된 냉전의 대립항(자본과 공산)이 우리 내부로 들어와 어떻게 동족을 타자화하고 끔찍한 피바람을 일으켰는지 보여주는 여실한 역사적 상흔이다.

이러한 냉전적 이분법은 남한의 종교적 지형마저 완전히 재편했다. 과거 유교의 대안적 사상으로 천주교(서학)를 자생적으로 수용했던 조선 후기의 흐름과 달리,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 뿌리내린 개신교는 철저히 미국식 복음주의와 반공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이식되고 팽창했다. 특히 공산 치하의 탄압을 피해 월남한 평안도 중심의 '서북 세력(한경직 목사의 영락교회 등)'은 이승만 정권 등 국가 권력과 결합하며 남한 보수 우익의 핵심 기득권으로 부상했다.²²⁾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식민 지배와 동족상잔이라는 한민족의 참혹한 역사적 상흔을 '고난 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서사와 동일시하는 선민의식을 자극함으로써, 대중의 폭발적인 호응과 교회의 거대한 성장을 이끌어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자신들이 겪은 가혹한 생존 및 탈출의 경험을 남한 체제 유지의 정치적 논리와 결부시켰고, 이를 서구 기독교 고유의 '선과 악' 프레임에 대입하여 '반공'을 절대적 선(善)이자 신앙의 척도로 규정했다. 결과적으로 이 주류 개신교 세력은 서구의 흑백논리적 이분법 사유를 한국 사회 기저에서 이념적 보루로 기능하게 했다.²³⁾

21) 4차례에 걸친 아랍-이스라엘 분쟁부터 현재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정권이 주도하는 참혹한 전쟁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타인을 향한 이스라엘의 배타적 폭력은 단순한 지정학적 영토 분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는 자신들만을 '선택받은 민족(빛)'으로 상정하고 타자를 악마화하여 물리적으로 소거(Cancel)하려는 유대적 '메시아주의'와 투쟁적 이원론의 지속을 여실히 보여준다. 로마 시대의 추방부터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간 서구 세계의 배타성에 핍박받아 온 이들이, 중동한복판에 팔레스타인을 일방적으로 몰아내고 건국을 강행한 것은 그 자체로 배타적 폭력을 재생산하는 행위였다. 즉, 이원론적 폭력의 처참한 희생자였던 유대 민족이 도리어 그 폭력의 매트릭스를 내면화하여 새로운 타자를 억압하고, 세계를 끝없는 분쟁으로 밀어 넣는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은 단지 이스라엘 스스로가 짊어지게 된 모순일 뿐만 아니라, 수천 년간 그들을 철저히 타자화하고 학살했던 인류가 둘러싸고 있는 참혹한 '공동의 업보(業報)'라 할 것이다.

22) 강인철, 『한국 개신교우파』,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6, 94-99쪽, 강인철 한신대 전 교수는 1930년대 한국 개신교의 보수화 과정을 분석하며, 당시 미국 본국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에 밀려 패배했던 근본주의 선교사들이 식민지 조선에서만은 독점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했음에 주목한다. 이들에 의해 한국 개신교 교권 세력의 신학적 보수화가 성공적으로 이식되었고, 그 결과 정치와 신학이 미분화된 상태의 극단적인 근본주의 신학으로 단일화되었다는 것이다. 해방 정국에서도 천주교 등 타 종단과 비교할 때 개신교가 일관된 우편향성을 띠며 반공 투쟁의 최전선에 섰고, 한국전쟁을 거치며 반공주의와 친미주의를 대중적으로 깊이 내면화함으로써 그들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더욱 팽창하고 고착화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주류 서북 세력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되어 교단에서 축출당한 유명화, 백남주 등 함경도 중심의 이른바 ‘원산 신비주의’ 세력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 독자적이고 기형적인 진화를 거듭했다. 이 비주류 신비주의의 계보를 이어받은 은둔형 이론가 김백문은, 기독교 신학에 주역(周易)과 음양오행이라는 토착적 우주관을 접목시켜 《기독교 근본원리》(1958)를 완성했다. 그는 성경의 ‘원죄’ 개념을 우주적 음양 질서의 파괴와 ‘오염된 피의 유전’으로 해석함으로써 한국형 신흥 이단의 뼈대가 될 신학적 도면을 설계했다. 주류에서 배제된 집단적 소외감과 전통 철학이 기형적으로 결합하여 탄생한 이 토착 교리는, 이후 통일교의 문선명을 필두로 전도관 박태선, JMS 정명석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이비 종교의 계보를 관통하는 거대한 사상적 수원지(水源池)가 되었다.²⁴⁾

결국, 조선 말 동학농민항쟁 당시 자행된 대규모 학살을 필두로, 일제의 식민 지배와 분단, 그리고 전쟁으로 이어진 한민족의 뼈아픈 역사적 비극과 상흔은 군사주의적 정권의 폭압 통치와 맹목적 반공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양지에서는 개신교 우파 세력을 거대하게 성장시키는 이념적 자양분이 되었고, 그 이면의 음지에서는 시대적 절망을 파고든 이단 종교들을 기형적으로 배태시켰다.

III.

수십 년간 세계 질서를 주도해 온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퇴조와 중국의 급격한 패권 팽창은,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진 줄 알았던 이분법적 갈등을 다시 호출하며 세계를 ‘신냉전(New Cold War)’의 구도로 재편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그리고 반도체법(CHIPS Act)과 무역법 301조를 앞세운 미국의 전방위적인 대중국 제재(Sanctions) 등은 이러한 지정학적 단층선이 또다시 거세게 요동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징후들이다. 나아가 미국은 특수부대를 동원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전 대통령 체포 작전, 쿠바에 대한 강력한 봉쇄, 그리고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까지 불사하며 이러한 냉전적 대립 구도를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의 전방위적 대중(對中) 포위망 구축이 노골화되면서 대만과 북한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고 있으며, 일본 역시 ‘정상국가’로의 전환을 핑계로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곧,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과의 안보·경제적 협력을 통해 번영을 누려온 남한 사회가 언제든 미국 패권주의를 대리하는 동아시아의 ‘이스라엘’로 호명되어, 또 다른 피비린내 나는 이분법적 대리전의 희생양으로 내몰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이러한 최근 국제사회에서 불고있는 신냉전 시대의 이분법적이고, 변증법적 모순을 추동시키는 힘이 과거 냉전 시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를 위시한 미국의 집권세력은 국가 권력과 거대 자본을 노골적으로 밀착시키는 ‘관방주의적 관리자 국가’로 회귀하고 있다.²⁵⁾ 한때 자유 시장경제의 수호자를

23) 윤정란, 『한국전쟁과 기독교』, 한울아카데미, 2021, 74,77,88쪽. 윤정란은 1954년을 기점으로 한경직을 위시한 서북 출신의 월남 기독교인들이 남한 장로교회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결정적 배경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과의 밀착을 통한 ‘물적 토대의 독점’에서 찾는다. 당시 미국의 기독교 구호 기관인 CWS(Church World Service)는 공산주의자들에게 피해를 입은 기독교인들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세계 교회를 반공 전선으로 결집시켰고, 1950년대 전 세계를 냉전 체제로 편입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전후 폐허가 된 한국 사회에서 CWS의 막대한 구호물자와 미국 장로교 해외 선교부의 선교 자금을 독점한다는 것은 단순한 교권의 장악을 넘어 막강한 정치적·사회적 권력의 획득을 의미했다. 결국 서북 출신 기독교인들은 미국 선교사들과의 유착을 통해 이 거대한 냉전적 자본과 물질적 지원을 독점함으로써, 남한 보수 우익의 핵심 기독교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24) 허호익, 『한국의 이단 기독교』, 동연출판사, 2020, 107,119,123쪽

25) 박노자, 『야만 시대의 귀환』, 한겨레출판, 2026, 355쪽

자처하던 미국이 중국과 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부상으로 다극화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역설적으로 중국식 ‘국가 주도의 경제 전략’을 답습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캐나다와 덴마크 영토가 인접한 북극 지방까지 패권 확장 야욕을 숨기지 않으며, 과격 한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빗장을 거는 미국에 맞서, 중국은 도리어 EU, 바티칸 등과 외교적 연대를 강화해가며 다자주의와 세계화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과거 미·소 냉전 당시에도 양 진영이 체제 경쟁 속에서 서로를 다투는 적대적 공생의 측면이 존재했으나, 지금은 그 궤가 완전히 다르다. 과거의 대립이 체제의 순수성을 증명하기 위한 ‘이념 투쟁’이었다면, 오늘의 신냉전은 이념의 껍데기만 남은 철저한 ‘탈이념적 패권 투쟁’의 민낯을 보여준다. 겉으로는 극단적인 대립향을 세우면서도, 이면에서는 제국의 생존을 위해 제3국을 경유한 우회 무역을 계속하고, 서로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경제 협력을 유지하며, 심지어 상대의 시스템과 방법론마저 거리낌 없이 복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신냉전의 격랑 속에서 미국은 중국화되고, 중국은 미국화가 되어 가는 기묘한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록 불안정한 형태일지라도, 세계 질서가 과거 유대-기독교식 변증법이 강요하던 ‘절대적 대립과 갈등의 방정식’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다. 현재의 양상은 모든 것을 단일한 자본의 논리로 획일화하던 과거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도 아니며, 그렇다고 완전한 단절과 파국으로 치달는 20세기형 냉전 구도로도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작금의 21세기의 세계는 각 국가와 대륙이 고유한 독자성을 맹렬히 내세우면서도, 생존을 위해 서로의 체제와 자본이 깊숙이 의존하고 교차하는 거대한 연기(緣起)의 네트워크로 재편되고 있다. 요컨대, 적대적 타자화의 한계에 봉착한 세계가 무한히 서로를 비추며 상즉상입(相即相入)하는 화엄의 ‘인드라마’으로, 비록 과도기적 혼돈과 모순을 수반할지언정 거역할 수 없이 새롭게 접속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제 정세의 거시적 지각변동이 스스로 서구적 이원론의 한계를 증명하며,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정수인 원효의 ‘화쟁(和諍) 사상’과 같은 동아시아적 사유를 새로운 시대의 보편적 프레임으로 강력하게 호출하고 있음을 뜻한다.

앞서 언급했듯, 남북이 여전히 분단된 한반도는 이러한 이질적 패권들이 맹렬하게 교차하는 ‘초고압의 지정학적 각축장’이다. 물론 오늘날의 한국은 4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역량을 갖춘 중견국가(Middle Power)로 성장하여, 수동적이었던 해방 공간의 처지와는 그 체급이 확연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내부에는 분단의 비극적 상흔에 기생하며 기형적으로 고착화된 배타적 이분법의 매트릭스를 계속해서 연장하려는 세력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주변국들의 보이지 않는 이데올로기적 대리전 또한 현재 진행형이다.

또 우려스러운 지점은, 특히 거시적 역사 인식을 체화할 기회가 부족했던 1020 청년 세대가 ‘화쟁(和諍)’보다 ‘대립’을 지향하는 극단주의적 진영 논리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본질적으로, 이들이 맹목적인 타자화나 미시적 혐오 현상에 쉽게 휩쓸리는 것은, 역설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여전히 서로 대립하며, 자신들의 뼈아픈 역사적 상흔을 보듬을 ‘스스로의 언어’를 상실한 채, 낡은 서구의 이분법을 대체할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역사적 비전’을 아직 현실의 언어로 번역해 내지 못했음을 뼈아프게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파국으로 치달는 서구 이원론의 맹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효의 ‘화쟁(和諍)’과 화엄(華嚴)의 ‘인드라마’이라는 융합적 사유를 가장 첨예하고, 설득력있는 당대의 언어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한국 철학의 주체성을 복원하는 로컬 과제를 넘어, 국제 사회를 움아매고 있는 배타적 이분법의 인식론적 틀까지 새롭게 재정립하는 지적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IV.

서구적 합리주의와 자본주의가 주도해 온 '가치 추상화'의 폭력성은, 세계를 '통제하는 이성(주체)'과 '계산되는 물질(객체)'로 철저히 쪼개어타자를 대상화하는 이분법적 '시(視)'의 인식론에서 비롯된다. 앞서 살핀 유대-기독교적 사유 역시, '절대적 신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피조물'이라는 명목 아래 창조주(절대 주체)와 피조물(수동적 객체)로 엄격히 분절함으로써, 만물을 신의 목적에 복무하는 도구적 기호로 환원시켜 버렸다. 이러한 분별적 태도는 우주적 근원인 '일심(一心)'을 잃어버린 채, 현상계의 대립과 소멸에만 집착하는 '생멸문(生滅門)'의 분별지(分別智)에 갇힌 맹목적 상태에 불과하다. 대상을 쪼개고 분석하는 '시(視)'의 폭력성은 필연적으로 세계를 선과 악, 자본과 노동, 중심과 주변으로 환원시키며, 타자를 향한 구조적 배제와 소외를 필연적인 결과로 남긴다.

타자를 타자화하는 이원론적 분절적 사유의 한계 앞에서, 원효는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에서 진여(眞如)의 절대적 평등[眞如門]과 생멸(生滅)의 현상적 차별[生滅門]이 결코 둘이 아님[不二]을 통찰하며 '개합(開合)'의 논리를 전개한다. 그는 논소의 서문에서 "펼치면 무량한 법문이 되고, 합치면 오직 하나의 이치로 돌아간다(開之則無量法門 合之則唯一理)"고 갈파한다. 이는 특정한 기호나 배타적 율법으로 세계를 재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펼침[開]과 접음[合] 사이를 아무런 걸림 없이 넘나드는 '개합자재(開合自在)'의 경지를 뜻한다. 원효에게 '개(開)'란 현실 세계의 모순과 다양성을 억압 없이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현장성(現場性)의 발현이며, '합(合)'은 그 파편화된 다원성이 본래 일심(一心)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바탕 속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자각하는 역동적 수렴이다.

결국 원효가 주창한 일심(一心)의 철학은, 세상을 '나'와 '타자'로 분절한 뒤 대차대조표를 쓰듯 아리스토텔레스식의 차가운 '중간값'을 계산해 내는 차가운 '시(視)'의 잣대²⁶⁾를 거둬들이는 작업이다. 이는 주객의 거리를 정당화하는 '객관적 관찰자'라는 서구적 인식론을 지양하고, 주객이 상호 침투하며 요동치는 세계의 실상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본질을 꿰뚫는 '관(觀)'으로의 거대한 인식론적 전회(轉回)를 요구한다. 세계를 조각내는 대상화된 시선(視)이 멈춘 바로 그 텅 빈 자리에서야 비로소, 만물이 연기(緣起)적으로 얽혀 호흡하고 있다는, 진정한 융합적 자각이 열리는 것이다.

앞서 논증했듯, 세계를 단절되고 고정된 실체(Substance)로 파악하는 서구 존재론은 타자와의 관계를 근원적 결핍으로 규정하며 이를 채우기 위한 투쟁을 진보의 동력으로 정당화해 왔다. 모순을 해결하려 고안된 변증법(Dialectic)조차 겉으로는 정(正)과 반(反)의 조화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타자를 끊임없이 부정(Negation)하고 배제함으로써 주체의 정당성을 세우려는

26)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trans. W. D. Ro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Book II, Chapter 6, 1106a. "By the intermediate in the object I mean that which is equidistant from each of the extremes, which is one and the same for all men; [...] for instance, if ten is many and two is few, six is the intermediate, taken in terms of arithmetical proportion." ("내가 '사물(대상) 자체에 있어서의 중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양극단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진 것을 말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이며 동일하다. 예를 들어 10이 많고 2가 적다면, 수학적 비례에 따라 그 중간으로 6을 취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中庸, 그리스어 *mesotês*, 영어 Golden mean)'은 도덕적 실천마저 산술적 비례로 치환하는 서구 이원론의 원형이다. 그는 세계를 양극단으로 분절한 뒤, 객관적 관찰자의 거리에서 대차대조표를 쓰듯 기계적 중간값을 계산해낸다. 이는 모순 속으로 뛰어드는 역동적 융합 대신, 실체화된 두 대립항 사이에서 이성이라는 저울을 통해 안전한 중간값을 계산해내는 서구 특유의 이원론적 사유, 즉 이성의 저울로 대상을 철저히 타자화하는 차가운 '시(視)'의 문법이 서구 인식론의 뼈대로 굳어졌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폭력적 논리로 작동해 왔다. 지난 냉전적 구도와 '반공 이데올로기'와 같은 이원론적 잣대 속에서, 인류는 이질적인 존재와의 공존을 모색하기보다, 오직 한쪽이 파괴되어야만 끝나는 제로섬(Zero-sum) 투쟁을 반복해 왔을 뿐이다. 이러한 서구적 사유의 대립지향성은 거시적 정치 현실 뿐만 아니라, 미시적 일상까지 우리의 삶을 깊게 잠식하고 있다. 오늘날 청년 세대를 잠식해온 극단적 진영 논리와 캔슬 컬처(Cancel Culture) 역시, 타자를 소거함으로써 스스로의 무결성을 드러내려는 서구적 인식론의 빈곤이 낳은 필연적 결과다.

이러한 서구적 변증법의 빈곤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사유가 바로 원효가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에서 정립한 '화쟁(和諍)'의 철학²⁷⁾이다. 원효는 팽팽하게 대립하는 수많은 교학과 이념들을 향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대신, "모두가 옳고, 또한 모두가 그르다(皆是皆非)"라는 파격적인 선언을 던진다. 이는 단순한 기계적 중립이나 타협이 아니다. 자신이 전 진리의 파편만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배타적인 '맹집(盲執, 편협한 집착)'을 날카롭게 해체하면서도, 동시에 그 파편이 거대한 일심(一心)의 그물망 속에서는 나름의 타당한 존재 이유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해 주는 고도의 정치철학적 작업이다.

이러한 원효의 방법론을 '파립(破立)'²⁸⁾이라 한다. 서구의 변증법이 과거를 짓밟고(破) 그 위에 새로운 것만을 세우려(立) 한다면, 원효의 파립은 상대의 아집을 부수면서(破) 동시에 그들의 본래적 가치를 세워주는(立) 동시적이고 입체적인 구원이다. 화쟁은 대립하는 모순을 어느 한쪽으로 환원시키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이질적이고 모순된 에너지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 속에 끌어안고 더 높은 차원의 진리로 섞어버린다. 세상을 0과 1, 아군과 적군으로 분절하여 통제하려 했던 유대적 '계산성'의 매트릭스 속에서, 원효의 화쟁은 이원론의 굳건한 성벽을 녹여내고 타자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며 융합해 내는 가장 강력하고 실천적인 해독제로 작동한다.

서구 자본주의가 주도한 '가치 추상화'의 폭력은 모든 질적 차이와 고유성을 단일한 기호(화폐)로 환원하고 납작하게 압착해 버리는 데 있다. 마르크스와 좀바르트가 지적했듯, 이 추상적 매트릭스 속에서 개별 존재가 지닌 피와 땀의 물성(物性)은 증발하고 오직 차가운 교환 가치만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반면, 원효가 『화엄경소(華嚴經疏)』 등을 통해 주목한 화엄(華嚴)의 세계관²⁹⁾은, 개별적 존재(事)들이 자신의 고유한 형태와 질적 차이를 온전히 유지하면서도

27) 원효,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 (HPC 1, 838c). "就理皆是 執情皆非"(이치에 나아가면 모두가 옳지만, 자신의 견해에만 집착하면 모두가 그르다.) 원효는 코끼리를 만지는 맹인(盲人摸象)의 비유를 들어, 일심(一心)의 전체성을 보지 못하는 맹집(盲執)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화쟁의 논리를 전개한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화쟁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특정한 교학의 해설에만 머물지 않고 당대 불교계의 극단적 대립상이었던 중관(中觀)과 유식(唯識)을 모두 회통시키는 거시적 견지에서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를 완성해 냈다.

28) 원효,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 제1권 (T 34, 961a). "破無所破 亦無不破 立無所立 亦無不立"(파하되 파할 바가 없고 또한 파하지 않음이 없으며, 세우되 세울 바가 없고 또한 세우지 않음이 없다). 원효의 파립(破立)은 타자를 부정하고 소거함으로써 새로운 주체를 세우는 서구적 변증법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는 특정한 교학에 얽매인 배타적 아집을 남김없이 해체(破)함과 동시에, 그 텅 빈 바탕 위에 만물이 지닌 본래적 타당성을 온전히 건립(立)하는 역동적이고 동시적인 융합의 실천 원리이다.

29) 원효, 『화엄경소(華嚴經疏)』 (HPC 1, 495a). "法界之體 融而無礙 [...] 雖一而不妨多 雖多而不礙一. 是故一中有多 多中有一 一即是多 多即是一"(법계의 바탕은 융합하여 아무런 걸림이 없으니 [...] 비록 하나[一]이나 여럿[多]을 방해하지 않고, 비록 여럿이나 하나를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가 가운데 여럿이 있고 여럿 가운데 하나가 있으며, 하나가 곧 여럿이요 여럿이 곧 하나이다). 원효의 이 거시적인 통찰은 훗날 현수 법장에 의해 화엄 철학의 궁극적 진리로 체계화되는 '사사무애(事事無礙)'와 '상즉상입(相即相入)'의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서구 자본주의의 '가치 추상화'가 개별적 존재들의 질적 차이[多]를 폭력적으로 지워버리고 단일한 교환 가치[一]로 환원해 버린다면, 원효가 주목한 화엄적 세계관은 개별 존재를 획일적인 기호로 압착하지 않고, 구체적인 현상[事]들이 있는 그대로

서로의 경계를 넘어 무한히 교섭하고 융합하는 '사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界)'이다. 이는 추상화된 기호로 세계를 획일화하려는 서구적 폭력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상과 현상이 아무런 장애 없이 상호 침투[相即相入]하는 생생한 다원성의 긍정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원효는 이러한 사상을 관념의 영역에 가두지 않고, 생생한 세속의 삶으로도 거리낌 없이(無礙) 뛰어들었다는 점이다. 원효가 승복을 벗어 던지고 저잣거리로 나아가 표주박을 두드리며 무애무(無礙舞)를 추었던 실천적 생애³⁰는, 성(聖)과 속(俗), 주체와 객체의 이원론적 경계를 자신의 신체를 통해 직접 허물어버린 혁혁한 실천이었다. 끊임없이 자기복제를 하려는 자본과 이념으로 물든 종교가 '추상적 기호'를 매개로 타자를 잠식해 들어가려고 할 때, 원효는 진흥당 같은 현실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현장성(現場性)을 통해, 만물이 공명하는 융합의 에너지 장을 몸소 구현했다.

결국 원효가 도달한 '무애(無礙)'의 상태는 쪼개진 세계의 파편들이 근원적으로 해체되어(破) 다시 역동적으로 엮히는(立) 생동성이다. 이는 대상을 고정된 형태(Form) 안에 가두려는 서구의 딱딱한 분절적 그리드(Grid)를 녹여버리고, 이질적인 에너지들이 서로 부딪히고 공명하며 새로운 생명력을 잉태하는 거대한 '융합의 장'을 여는 철학적 서곡이다. 시(視)의 분절을 끝내고 관(觀)의 융합에 도달하려는 이 무애의 춤이야말로, 지난 세기를 지배해온 도구적 이성의 폭력을 극복하고, 동시대 사유가 도달해야 할 근원적 영역인 것이다.

V. 결론

서구의 헬레니즘적 합리주의와 유대-기독교적 목적론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이원론적 세계관'은 인류에게 근대적 이성과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었으나, 그 이면에는 타자를 끊임없이 대상화하고 배제하는 폭력의 구조가 은폐되어 있었다. 자본주의의 '가치 추상화'는 만물의 고유한 생명력을 차가운 교환 가치(화폐)로 환원시켰고, 냉전의 지정학적 이데올로기와 결합한 종교적 근본주의는 세상을 절대 선과 절대 악으로 쪼개어 제로섬(Zero-sum)의 투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폭력의 근저에 세상을 주체와 객체, 중심과 주변으로 분절하여 통제하려는 서구 특유의 닫힌 인식론, 즉 '시(視, Objectification)'의 맹점이 따리를 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고는, 동시대 청년 세대를 잠식한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타자화의 폭력이 단순한 정치적 현상이 아니라, 수천 년 묵은 서구적 이원론과 결핍의 존재론이 연기론적(緣起論的) 얽힘 속에서 한반도라는 시공간에까지 투영된 지독한 구조적 비극임을 추적해 왔다. 나와 타자를 완벽히 단절된 실체로 상정하고, 타자를 배제(Cancel)함으로써 나의 결핍을 채우려는 이분법적 '시(視)'의 굴레 속에서는 결코 작금의 혐오를 멈출 수 없다. 더군다나 '초고압적 지정학적 각축장'이 되어버린 한반도에서, 이러한 분절의 폭력이 마치 공기처럼 흐르는 스마트폰 알고리즘을 타고 더더욱 증폭되고 있는 참담한 형국이다.

본고가 서구의 변증법적 투쟁과 메시아주의적 이원론을 비판적으로 해체한 것은, 결코 서구

서로를 온전히 품어내는 역동적인 공존의 인식론이다.

30) 일연, 『삼국유사(三國遺事)』 권4, 「의해(義解)·원효불기(元曉不羈)」. "一切無礙人 一道出生死 [...] 曉乃名之曰無礙 [...] 嘗持此飲街弄巷 舞且歌之" (『화엄경』에 이르길 "일체에 걸림이 없는 사람[無礙人]은 단번에 생사를 벗어난다"고 하였다. [...] 원효가 이에 (표주박의) 이름을 무애라 하고 [...] 거리와 골목을 누비며 춤추고 노래했다). 이 기록은 원효가 사사무애(事事無礙)의 철학을 텍스트적 관념에 가두지 않고, 주객이 역동적으로 엮히는, 성속(聖俗)의 이원론적 경계를 허무는 실천적 '몸의 언어'로 승화시켰음을 보여준다.

문명 전체를 '절대 악'이나 폐기해야 할 오류로 규정하려는 도식화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서구 사유를 지탱해 온 역사적·철학적 본질을 제대로 '관(觀, Integrative Perception)'하지 못한 채, 그들의 투쟁적 문법을 마치 보편적 진리인 양 무분별하게 이식해 온 우리의 인식론적 종속에 있다. 과거의 상흔에 갇혀 타자를 배척의 대상으로만 고립시키는 이 결핍의 렌즈를 벗어던지지 않는 한, 이 땅에 드리운 대립적 역사는 결코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서구 사유의 한계를 해부하는 시도는,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독자적인 철학 체계와 미학적 감각을 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통과의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체적 인식의 전환을 위해 본고가 호출한 원효(元曉)의 사유는, 서구적 대립의 매트릭스(Matrix)를 꿰뚫는 완벽한 대안적 시좌(視座)를 제공한다. 서구의 메시아주의와 변증법이 구원(畧)이라는 미래의 목적지를 상징하고 현재의 타자를 배제(反)하는 '결핍과 투쟁'의 선형적 역사관이라면, 원효의 '일심(一心)'과 '화쟁(和諍)'은 새로운 존재론적 지평을 여는 근원적 통찰이다. 그는 『대승기신론소』의 '개합(開合)'을 통해 분절된 세계가 본래 일심(一心)의 근원에 맞닿아 있음을 관조했고, 『십문화쟁론』의 '파립(破立)'을 통해 쟁론(百家異諍) 속의 타자를 이단으로 꺾으려 하는 대신 모순 그 자체를 융합하는 화쟁(和諍)의 정치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화엄경소』를 몸소 체현한 그의 '무애(無礙)'적 삶은, 기호화된 매트릭스에서 벗어나 진흙탕 같은 현실 속에서도 모든 개별적 존재가 상호 침투하는 근원적 생동의 장을 열어젖혔다.³¹⁾

결국 원효의 화쟁은, 타자를 완전히 소거하면서, 미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이는 연기적으로 얽혀있는 지금 여기의 타자들을 주객의 경계없이 통찰하고, 감응하는 대승적 실천이다. 다시 말해, 세계를 분절하던 '시(視)'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무애(無礙)'한 '관(觀)'의 미학을 열어젖히는 장엄한 선언이다.

31) 원효,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 권1 (T 34, 961a). "無所立而無不立也, 無所破而無不破也"(세우는 바가 없으면서도 세우지 않음이 없고, 깨뜨리는 바가 없으면서도 깨뜨리지 않음이 없다). 원효의 화쟁은 단순히 대립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진영이 옳다고 믿는 '이분법적 집착' 자체를 깨부수는 파립(破執)의 과정을 거친다. 특정 관점을 세워 타자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진리를 드러내는 무애(無礙)의 경지를 설명한 이 대목은, (서구적 변증법과 달리) 대립하는 극단들을 일미(一味)의 지평으로 열어젖힌다.

참고문헌 (References)

1. 1차 문헌 및 고전

- 원효.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 제1권 (T 34).
원효.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 (T. 44).
원효.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 (HPC 1).
원효. 『화엄경소(華嚴經疏)』 (HPC 1).
일연. 『삼국유사(三國遺事)』 권4, 「의해(義解)·원효불기(元曉不羈)」.

2. 참고서적

- 원효. 『대승기신론 소·별기』. 최세창 역. 운주사, 2016.
원효. 『대승기신론소기회본』. 은정희 역, 김성철 감수.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이규완. 『불교철학의 이해』. 씨아이알, 2024.
강인철. 『한국 개신교우파』.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6.
권석준.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 사이언스북스, 2026.
김용옥. 『예수님의 육성, 도마복음』. 통나무, 2025.
몽배원. 『중국심성론』. 이상선 역, 법인문화사, 1996
박노자. 『야만 시대의 귀환』. 한겨레출판, 2026.
윤정란. 『한국전쟁과 기독교』. 한울아카데미, 2021.
정민철. 『1020 극우가 온다』. 페이지2, 2026.
허호익. 『한국의 이단 기독교』. 동연출판사, 2020.

3. 국외서

- Aristotle. *Metaphysics*. Trans. W. D. Ross. Oxford: Clarendon Press, 1924.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Trans. W. D. Ro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Augustine of Hippo. *The City of God (De Civitate Dei)*. Trans. Marcus Dods. New York: Modern Library, 1950.
Boyce, Mary. *Zoroastrians: Their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s*. London: Routledge, 1979.
Kuhrt, Amélie. *The Persian Empire: A Corpus of Sources from the Achaemenid Period*. London: Routledge, 2007.
Löwith, Karl. *Meaning in History: The Theological Implications of the Philosophy of Hist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9.
Marx, Karl. "On the Jewish Question." In *Marx/Engels Collected Works*, Vol. 3,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5.
Mearsheimer, John J., and Stephen M. Walt. "The Israel Lobby." *London Review of*

*Books*28, no. 6, 2006.

Muller, Jerry Z. *Capitalism and the Jew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Sombart, Werner. *The Jews and Modern Capitalism*. Kitchener, ON: Batoche Books, 2001.

Tarnas, Richard. *The Passion of the Western Mind: Understanding the Ideas that Have Shaped Our World View*. New York: Ballantine Books, 1991.

Weber, Max. *Ancient Judaism*. Translated by Hans H. Gerth and Don Martindale. Glencoe, IL: Free Press, 1952.